「최초의 신세대」 선우용녀
「마지막 구세대」 김윤경

KBS 1「당신이 그리워질 때」의 김윤경.

KBS 2「일요일은 참으세요」의 선우용녀.

두 시어머니像 묘한 대조

호된 시집살이 겪고 아들엔 배신감

K 1「당신이…」 김윤경 | K 2「일요일…」 선우용녀

아들내외 분가…딸부부와 친구처럼

TV드라마속의 두 시어머니가 40대후반에서 50대에 이르는 주부시청자들의 공감을 자아내고있다. KBS 1「당신이 그리워질 때」의 김윤경과 KBS 2「일요일은 참으세요」의 선우용녀가 그 주인공. 현실과 동떨어진 인물이 판을 치는 TV속에서도 이들은 「요즘 시어머니像」을 사실성 있게 그려 『맞다, 내야 기다』하고 무릎을 치는 주부들이 적지 않다.

「당신이 그리워질 때」의 김윤경은 외아들을 둔 홀시어머니 아래서 호된 시집살이를 겪었으면서도 자신은 직장에 다니는 며느리에게 그만한 대우를 못받는 「불행한 시대」의 시어머니.

남편은 어머니에게는 효자이지만 아내에게는 무뚝뚝하기 그지없는 「전통형」인데 애지중지 키워온 아들은 제 처에만 빠져있는 신세대다. 이때문에 가족들에게 배신감을 느낀 김윤경은 한동안 가출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요즘 젊은 며느리들 이해못할 부분이 많지요. 자기들 아쉬울 때만 어머니하지 평소에는 어른도 몰라보잖아요』

실제로 아들만 둘 두고 있는 김윤경은 극중 시어머니역할에 깊이 빠져있어 극중에서 며느리가 직장일로 늦으면 『괘씸하다』싶어 나무라지만 딸이 같은 일로 늦을 때 『얼마나 힘들까』싶어 안타까워하는데 대해 김윤경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며느리는 며느리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라고 선문답을 했다.

이에 비해 「일요일은 참으세요」의 선우용녀는 아들내외는 살림을 내주고 딸부부와 친구처럼 사는 신세대 시어머니다.

실제로도 딸(가수 최연제)과 친구처럼 지내고 있다는 선우용녀는 7년간의 미국생활 경험덕에 신세대를 전폭 이해하는 사람으로 자부하고 있다.

『시어머니들도 세상변하는 것은 인정해야지요.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 대우받기만 원한다면 어느 젊은이가 좋아하겠어요. 어른이 먼저 베풀어야 며느리도 따르는 법이거든요』

극중에서 선우용녀는 제 앞가림 잘하는 똑똑한 며느리를 딸과 다름없이 대한다. 남편과 부부싸움을 해도 딸보다 며느리를 찾을 정도다. 며느리가 당분간 아이를 갖지않겠다는 것이 좀 못마땅하면서도 『저희들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것』이라면서 간섭하지 않는다.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를 딸처럼만 생각한다면 세상에 고부갈등이 있을 수 없겠지요. 며느리도 남의 집 귀한 자식이잖아요』

그는 신세대며느리와 대화가 가능한 「첫번째 시어머니세대」라고 자부하고 있다.

(金順德)